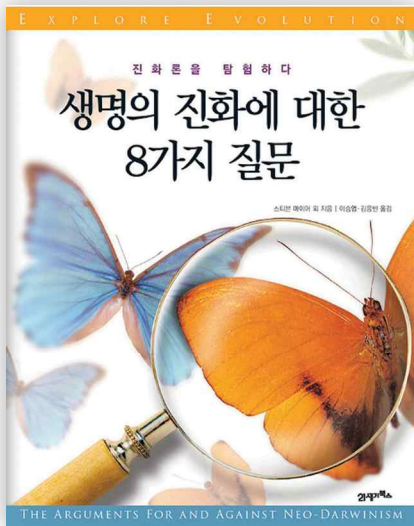


진화론을 탐구하다 :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

글 이승엽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지적설계연구회 회장



서울: 21C북스, 2010

현재 생명의 기원에 관한 생물학의 중심 이론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자연선택에 의해서 점진적인 진화가 발생하였다는 신다윈주의 이론이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주류 진화론을 증거에 기반한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가 자연선택에 의한 점진적인 진화로 출현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으며 진화론자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하나의 생명나무에 의한 진화 모델보다는 과수원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생명나무 모델이 과학적 증거와 더 잘 일치한다고 본다. 또한 타계한 스티븐 제이 굴드 교수를 대표로 한 화석을 연구하는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화석 증거가 생명의 점진적인 진화보다는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 모델과 더 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진화론 관련 많은 대중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반 독자들을 겨냥하여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유일한 과학 이론으로 설명함으로써 깊이 있는 진화론 논쟁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서적들은 진화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만을 강조한다. 이 같이 한 쪽 관점만을 다루는 책들을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관해 '증거에 기반한 토론'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왔다. 진화론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2008년에 출간한 원제 "Explore Evolution"이란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진화론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을 이끌고 있는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디렉터인 스티븐 마이어 박사와 아이오와 대학의 생물학교수인 스콧 미니크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저자가 진화론을 더 깊이 탐구하며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이슈에 대해서 현재 주류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이를 비판하는 다른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찬반 형태로 토론하도록 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찬반 토론 형식으로 출간되는 최초의 진화론 서적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독자들이 가장 놀라게 되는 사실은 자연선택에 의한 점진적인 생명의 변화를 말하는 현재 주류 신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해 진화론자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일반 대중들이 거의 접해보지 않은 내용들이다. 이 책은 생명의 진화에 관한 8가지 이슈 중

“이 책은 생명의 진화에 대한 진화론자 내부의 논쟁을 대중들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가지 ① 화석 천이 ② 해부학적 상동성 ③ 분자적 상동성 ④ 발생학 ⑤ 생물지리학 ⑥ 자연선택 ⑦ 자연선택과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현재 주류 진화론자들의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다른 진화론자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다만 8번째 이슈인 ‘분자기계’를 다루는 장에서는 최근 생명의 복잡성 구조에 대한 지적설계론 과학자들과 일부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류 진화론자들의 학술적인 비판을 다룸으로써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찬반 토론 후에 각 장 후반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한 종합적 견해를 함께 실었고 관련된 모든 저명 학술지의 세부적인 의견들을 추가하여 학술적인 증거에 기반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물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생물학 연구자들도 토론의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진화론에 대해 배경과 입장이 서로 다른 두 명의 국내 과학자가 여러 토의를 거쳐 충실하게 번역하고 다양한 컬러 화보를 덧붙여 이해도를 높였다.

“만약 수많은 연속적이고 작은 변형을 통해서 생길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으로 여겨지는 『종의 기원』에 다윈의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놀라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진화론이 생명 기원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다윈의 언급처럼 자연선택의 진화론으로 생길 수 없는 복잡성의 구조를 연구하며 검증하는 것이 진정한 다윈주의자의 길이 아닐까? 불행히도 현재의 생물학에서는 그 어떤 증거를 갖고도 진화론을 학술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연주의의 관점에 근거한 진화론을 비자연주의적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주류 생물학계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진화론을 깊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진화론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져 진화론이 유일한 생물학 이론으로 모든 이가 받아들이는 때가 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 이론이 과학계의 검증 과정을 통과하여 진화론과 공식적인 토론을 할 때가 오든지, 둘 중에 어느 쪽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 이 책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세계관 논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생명 기원에 대해서 핵심 쟁점과 논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을 기독 지성인들이 꼭 읽어보길 추천한다.

국내의 대형출판사중 하나인 21세기북스에서 출간하여 주요 서점 및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업을 위한 자료는 지적설계연구회 홈페이지 (www.intelligentdesign.or.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